

### 3) 순천청년회의 혁신과 순천여자청년회의 결성

문화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던 청년단체는 1921~1922년을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갔다. 이는 민족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사정과 관련된다. 청년단체의 침체에는 조직적인 문제점도 일정하게 작용했다. 청년단체에는 지역사회의 유지층인 지주와 상공인, 지식청년들, 심지어 관공서의 관리까지 가입해 있었다. 더욱이 유지층이 청년단체의 집행부를 장악함으로써 청년들은 청년회의 조직적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초기 청년단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은 새로운 조직구조를 모색하게 되었다. 즉, 청년단체의 조직을 회장제에서 집행위원제로 변경하고 재정구조를 회비 중심으로 운영하여 단체의 운영을 청년들이 장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청년단체의 혁신운동은 1921년경부터 나타나 1920년대 전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거치면서부터 청년회 혁신운동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청년들이 추진하였다. 청년당대회는 청년회연합회에서 탈퇴한 서울청년회를 비롯하여 18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기했으며, 이 단체의 활동가들은 이후 서울과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다. 청년당대회는 물산장려운동의 박멸, 종교부정론 등을 결의하였으며, 각 지역 청년단체의 성격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청년운동은 점차 문화운동에서 떨어져나와 사회주의 청년운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종래 문화운동자, 실력양성론자, 사회주의사상가 등이 혼재되었고, 계몽적 성격이 강했던 청년단체는 이제 사회주의사상에 동조하고 반일성향이 농후한 청년들이 모인 비교적 단일한 경향성을 갖는 단체로 변모해가는 것이다.

순천청년회는 전조선청년당대회에 한태선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청년당대회의 참여를 계기로 순천청년회의 활동내용 혹은 간부진의 구성에 즉각적인 변화가 초래된 것은 아니었다. 순천청년회의 변화는 1924년 초부터 서서히 진행되었다.

순천청년회는 1924년에 들어서면서 사상단체, 농민단체, 노동단체 등과 공동행동을 조직하였다. 2월 19일 순천청년회 총무 박승봉은 순천무산자동맹회 임시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같은 달 21일에는 순천청년회, 면려청년회, 순천노동청년회, 순천농민대회연합회, 순천면농민대회, 순천노동대회, 순천무산자동맹회, 순천연합회, 순천친목회, 순천청년구락부, 순천운동구락부, 순천보통학교졸업생동창회 12단체 대표가 모여 22일에 개최될 순천군향교장의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보통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을 수용할 강습소를 향교 재산으로 설치하라고 향교장의회에 권고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5명 이상이 장의회의를 방청함으로써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향교재산관리자 및 향교장의회와 교섭할 위원으로 박승봉·한태선·김기수·정성기(鄭成基)·정시환을 선정하였다. 박승봉·정시환·한태선은 순천청년회, 김기수·정성기는 순천무산자동맹회 간부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 두 단체가 12단체 대표 회합을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전에 일부 장의들과 일정한 합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장의회의 석상에서 농민단체, 청년단체에 참여하고 있던 장의 정영하(별량면농민대회), 신철우(낙안면농민대회), 한상준(동초면청년회)이 이구동성으로 장의회 예산 일부를 강습소 설치비로 지출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일부 장의도 동의하고 나섰지만 회의를 주관하던 순천군수는 그것을 묵살하고 폐회를 선언하고 말았다.

앞서 12단체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교섭위원 5인은 장의회의 종료 후 즉각 군수를 면담하고

강습소 설치비 지출을 요구하였다. 이후의 경과는 알 수 없지만 사회단체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은 것 같다. 1924년 4월부터 순천청년회의 단독 사업으로 강습소인 승평학원을 개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단체 대표 회합은 순천 사회단체가 대규모로 공동 보조를 맞춘 최초의 대사건이었다.

이무렵 중앙에서는 화요회그룹, 북풍회그룹, 서울청년회그룹과 조선청년회연합회 등이 연합하여 조선청년총동맹을 발기하고 가맹단체를 모집하는 등 전국적인 청년운동 지도기관 건립을 준비하였다.<sup>1)</sup> 순천청년회는 조선청년총동맹 창립 이전에 가맹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었으며, 별량면청년회·순천무산자동맹회도 그에 가입하였다.

1924년 7월 17일 순천청년회는 사상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박영진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양수가 연사로 등단하여 무산대중운동은 유물사관에 따라 필연적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순천청년회의 지도부는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고 그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순천청년회 지도부의 사상적 경향이 바뀌게 된 데에는 순천지역의 제1세대 사회주의자인 이영민, 이창수 등의 동향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농민운동은 이미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었다. 1924년 4월 송광면농민대회는 '단결의 힘으로써 우리 계급의 해방을 기함', '완전무결한 사회의 실현을 기하는 동시에 우리의 복리 증진과 생활 향상을 기도함',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계급과 악전고투를 쉬지 않기를 기도함'이라는 3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1925년 1월 22일 순천청년회와 순천노동청년회는 보천교의 외곽단체인 대동단의 순천 강연회를 도중에 해산시켰다. 이는 1925년 중반 이래 청년운동계에서 고조된 반종교운동의 서막이었다.<sup>2)</sup> 1925년 3~4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전국의 대중단체가 시끄러울 때 순천청년회·순천노동청년회·송광청년회는 무산자동맹회, 순천농민대회연합회와 각 면 농민단체, 순천노동연합회(1924. 5. 순천노동대회에서 개조), 목공조합 등 직업별 노동조합 등과 보조를 맞추어 그 개최를 지지하였다.

이즈음 순천 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대규모 공동행동을 조직하였다. 1925년 5월 1일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대규모 노동절 기념행사를 가진 것이다. 갖가지 노동절 기념행사를 기획하던 중 경찰에서 옥외집회와 시위행렬을 금지했기 때문에 연합야유회로 대체되었다. 향림사에서 개최된 노동절 기념야유회에는 4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순천읍의 공장·점포 39개소는 휴업을 하고 노동절을 기념하였다.

1924년 이래 서서히 자신을 바꾸어오던 순천청년회는 1925년 7월 8일 혁신총회를 개최하였다. 박영진의 사회로 진행된 혁신총회에서는 청년단체, 청년 교양, 회관 건축, 반동단체·개인, 조선청년총동맹, 조선인 경제, 청년하기강습회, 승평학원에 관한 문제 등이 광범하게 토론되었다.

전국적으로 볼 때 1924~1925년 시기의 청년단체 혁신은 그 이전과 달리 사회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일어난 사상적 전환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 혁신의 주된 형태는 계급적 강령 채택, 집행위원제로 회체 변경, 연령 제한의 단행 등으로 나타났다. 순천청년회의 혁신총회에서는 신강령의 채택, 연령제한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회장제 조직구조를 집행위원제로 개조한 상태였다.

1)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경과는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참조.

2) 종교는 대중의 마취제이므로 철저히 배척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주의 청년단체는 1925년 중반부터 반기독교운동, 반보천교운동을 벌여나갔다.

혁신총회를 전후한 시기 순천청년회의 주요 활동가는 박영진, 정시환, 한태선, 정순제 등이었다. 앞의 3명은 순천청년회 초창기부터 참여한 인물로서 이즈음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강화해갔던 것으로 보이며, 정순제는 당조직에 따라 목적의식적으로 순천청년회에 배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순제 등을 매개로 순천청년회와 순천노동청년회는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나갔다. 사회주의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인 청년활동가들은 계급해방을 민족해방의 전제로 사고하면서 청년대중의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대중운동의 선봉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6년 초부터 순천청년회의 핵심 활동가로 이영춘(李榮春), 김태식(金台植), 윤귀중(尹貴重), 임규홍(任奎洪) 등 신예들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1920년대 중후반 순천지역 청년운동의 새로운 지도부로 성장해나갔다.

내부 혁신을 단행한 순천청년회는 1925년 7월 27일 군내 사회단체와 함께 을축수재구제회를 창립하였다. 을축수재구제회는 전국 각지의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순천청년회, 순천노동청년회, 면려청년회, 순천청년구락부, 순천유학생대회, 순천농민연합회(1925. 6. 순천농민대회연합회에서 개명), 순천노동연합회, 무산자동맹회, 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시대일보사의 순천 3지국 11단체 대표가 참여하였다. 을축수재구제회는 각지의 수해 참상을 소개하고 의연금 모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연설회를 개최하였으며(연사 이영민·정순제·윤행중), 시내 요소에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담당구역을 나누어 의연금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각 구별 담임위원은 제1구 윤행중·김성일·오재성, 제2구 김양직·오한길, 제3구 강기반·허순·오명동, 제4구 박병두·이영민, 제5구 서병기·김기수, 제6구 이창수·조일송으로 편성되었다. 이어 7월 29일 순천청년회는 광양·벌교의 청년단체와 함께 동부 6군 청년단체의 연합기관인 전남동부청년연맹을 발기하였다.

1925년 9월 7일 순천청년회와 순천노동청년회는 국제무산청년의 날 기념강연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강연장에는 시작 전부터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대만원을 이루었다. 지정 연사인 정순제와 박영진의 강연이 끝나자 참석자의 자유 연설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강연회는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당일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지정 강연 : '국제청년데이의 역사적 의의'(정순제), '청년운동의 귀추(歸趨)'(박영진)  
 자유 연설 : '청년데이와 우리 운동'(강기반), '무산청년이 단결하자'(김영찬), '진진'(송중호), '우리의 무기는 단결에 있다'(김응수), '나의 직감'(김을조), '무산자와 국제적 단결'(이창수)

강연 및 연설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목을 통해볼 때 무산청년, 즉 노동청년과 농민청년의 단결의 필요성, 무산청년이 청년운동의 중심세력이라는 점, 청년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강연은 교육과 산업 진흥의 필요성, 청년의 각성을 막연히 부르짖던 1920~1923년 시기의 강연회·토론회와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1920년대 중반 순천 청년운동 지도부의 지도방침은 다음 정순제의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또한 생을 위하여 싸운 유혈의 결정임을 기억할 때에 앞에 오는 세세상의 주인이 될 우리 청년은 역사적 대사명을 두 어깨에 지고 사회 진화의 대법칙 위에서 현재 부르주아사회의 필연적 산물인 도시의 임금노동자 운동과 농촌의 농민운동을 위해 용감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단연히 일어나 현 사회의 토대인 생산관계 즉, 경제조직을 일각이라도 속히 파괴하고 그 발달 위에 신사회 창건을 위해 피땀을 흘리자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에 대한 무엇보다도 큰 의무행동이다.(정순제, 「광양 각 청년단체에 고함」, 동아일보』1924. 12. 2.)

여기에서 청년의 역할과 임무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선봉대로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성장·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천청년회 등 청년단체는 노동단체·농민단체와 연대를 강화해왔던 것이며, 노동자·농민들의 투쟁을 지원하였다. 1925년 10월 순천청년회·순천노동청년회·전남동부청년연맹은 도초도 소작쟁의단에 동정금을 보내어 격려했다.

순천청년회와 순천노동청년회는 여성들을 조직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23년 이래 노동·농민·사상·청년운동 각 부문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가운데 유독 여성계만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여성단체로서 매산여자청년회가 있었지만 종교적 모임으로서 성격이 강했다. 순천청년회와 순천노동청년회는 우선 여성 조직화의 필요성과 여성운동의 방향을 대중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두 단체는 1925년 12월 7일 여성문제 대강연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순천의 청년활동가들은 '성적 혁명'(박영진), '여성해방의 전술'(정순화), '여성해방의 열쇠'(정순제), '여성해방과 무산운동'(강기반)에 대하여 연설하였고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상무집행위원 남대관(南大觀)은 '여성해방의 나의 시찰'이라는 연제로 열변을 토하였다. 연사들은 한결같이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여성운동의 방향을 선전하였으며, 그것이 무산계급운동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후 한 달여 만인 1926년 1월 9일 김마리아 외 7인의 여성들이 모여 순천여자청년회 발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들을 중심으로 창립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1월 16일 청년활동가 김성우(金星宇) 집에서 순천여자청년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순천여자청년회는 '모든 해방을 목표로 많은 훈련과 교양에 노력할 것' 등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순천여자청년회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출범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집행위원장 박옥신(朴玉信), 회계 광희주(郭喜主)가 사임하고 집행위원장은 김마리아로 개선되었다. 이후 순천여자청년회는 순천청년회 등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일반 청년단체와 보조를 맞추면서 역량을 쌓아나갔다. 1926년 4월 26일 순천여자청년회는 순천청년회와 공동으로 여성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 연사로는 당시 여성운동계의 지도적 인물인 정종명(鄭鍾鳴)이 초청되었다.<sup>3)</sup> '남자에게 보내는 살'이라는 제목의 정종명 강연은 매우 격렬하고 반일적·선동적이었던 듯, 끝내 일제 경찰에게 중지되고 말았다.

---

3) 이애숙, 「정종명의 삶과 투쟁, 혁성」3, 창작과 비평사, 1989. 이무렵 정종명은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 집행위원장, 사회주의 여성들의 집합체인 여성동우회 집행위원, 사상단체 정우회의 상무집행위원이었으며, 후에 전국적인 여성단체 근우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여성활동가였다.